



화려한 개막 ... 열전 16일 '스타트'

42억 아시아인의 최대 스포츠 축제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12일 밤 9시(한국시간) 중국 광저우 주장(珠江) 하이신사(海心沙)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갖고 16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41개 종목에 1013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한국은 4회 연속 종합 2위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진종오 오늘 50m 권총서 첫 금 쏜다

한국 종합 2위 목표 금빛 레이스 출발 야구 대만·축구 팔레스타인과 맞대결

제 16회 광저우아시안게임이 12일 밤 9시(한국시간) 광저우 주장(珠江) 하이신사(海心沙)에서 개막식을 열고 16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아시안게임 사상 최대 규모인 44개 종목, 1013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한국은 13일 사격과 유도 등을 앞세워 대회 메달레이스를 시작한다. 목표는 4회 연속 종합 2위다.

한국 선수단에 가장 먼저 금빛 낭보를 전할 주인공은 사격 또는 유도에서 나올 공산이 크다.

2006년 도하 대회 때 3개의 금메달을 수확했던 사격과 네 차례 금빛 메치기에 성공했던 유도는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을 다툰다.

사격은 1998년 방콕 대회에서 김정미가 금빛 과녁을 명중시켜 선수단 1호 금메달을 배출했고 유도는 4년 전 도하 대회 때 장성호가 남자 100kg급 정상에 올라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이번 대회에선 사격의 남자 간판 진종오(KT)와 남자 유도의 '탱크' 황의태(수원시청)가 첫 금메달 후보로 꼽힌다.

진종오는 13일 남자 50m 권총에 출전하고 황의태는 남자 100kg급에 나서 유도 메달 행진의 스타트를 끊는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50m 권총에서 금메달을 땀던 진종오는 같은 종목에선 2002년 부산 대회 단체전 은메달, 2006년 도하 대회 개인전 6위에 그쳤기에 이번에만큼은 금빛 총성을 울리겠다는 각오다.

2003년 오사카 세계선수권대회와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90kg급에서 우승했던 황의태는 100kg급으로 한 체급을 옮겨 출전한다. 황의태는 지난 6월 동아시아선수권대회 정상에 올랐지만 8월 세계선수권대회 3회전 탈락의 아쉬움을 이번 대회에서 털어낼 기세다.

아시안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처음 채택된 댄스스포츠의 남상용-송이나, 조상효-이세희, 이상민-김해인 커플도 각각 스타더트 탭고와 왈츠, 퀵스텝 종목에서 '깜짝 우승'에 도전한다.

야구와 축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 구기 종목은 결선 진출에 속도를 낸다.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에 빛나는 야구 대표팀은 우승 라이벌인 대만과 조별리그 1차전을 벌인다. 조범현 감독은 '좌완 특급' 류현진(한화)을 앞세워 도하 대회 챔피언 대만을 꺾고 기선을 잡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또 북한에 달미를 잡힌 뒤 요르단을 4-0으로 대파했던 남자축구는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인 팔레스타인과 맞붙는다. 이밖에 대회 3연패를 노리는 남자배구는 '약체' 베트남과 첫 경기를 벌이고 탁구, 배드민턴도 남녀 단체전 1라운드를 시작한다.

진종오(KT)와 남자 유도의 '탱크' 황의태(수원시청)가 첫 금메달 후보로 꼽힌다. /연합뉴스

독특한 아시안게임 야구를

흠린 친 뒤 '하이파이브' 금지

대만전 류현진 선발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야구에서는 프로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이색 규정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야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부터 활성화된 승부차기 등 독특한 규정이 도입된다.

경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으로 양팀이 9회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면 10회 연장 10회에서 무사 주자 1, 2루 상황에서 공격을 시작한다. 9회 종료 때와 다른 라인업을 새롭게 짤 수는 없지만 감독이 원하는 타자부터 타석에 들어설 수 있다.

또 타자가 흠린을 쳤을 경우 베이스를 돌아 홈으로 돌아올 때까지 동요나 코치와 접촉하면 안 된다. 프로야구에서는 타자가 흠린을 친 뒤 1루 또는 3루 코치 등과 하이파이브 등을 나누는 게 일반적이다. 만약 타자가 규칙을 위반하면 감독이 경고를 받는다. 그럼에도 또 위반하면 팀에 벌금이 부과되고 감독은 퇴장된다.

또 수비 측이 타임을 불렀을 때 내야수 한 명만 투수 마운드로 갈 수 있다는 점은 프로야구와는 다르다. 프로야구에서는 타일 때 대개 내야수 모두가 투수 주위로 몰려간다.

아울러 이번 대회에서는 경기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12초 룰'(주자가 없을 때 투수가 12초 이내에 투구하도록 하는 규칙)도 도입했다. /연합뉴스



대만전 선발투수 류현진.

각 팀 대표자는 또 3회와 6회 2분씩 클리닝타임을 두기로 했고 6심제에도 동의했다. 대표자들은 또 경기가 펼쳐지는 아오티야구장 제1발드 내야에 비치된 방수포와 관련된 '로컬 룰'도 마련했다. 타구가 방수포 사이에 끼면 '볼 데드'가 되고 공이 튕겨 나오면 인플레이가 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한편 13일 오후 7시(한국시간) 광저우 아오티야구장에서 열리는 대만과의 대회 첫 경기에서는 '국가대표 에이스' 류현진이 예정대로 선발 임무를 맡는다.

류현진은 경기 전날인 12일 오전 3시 훈련 위주로 가볍게 몸을 풀며 13일 경기에 대비했다. /연합뉴스

박태환 "물 感이 좋다"

경기장 수심 2m로 깊어 유리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4년 전 도하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21·단국대)은 경기를 치를 아쿠아틱센터에서 첫 훈련을 하고 나서 "물 感(感)이 좋다"고 했었다.

아오티 아쿠아틱센터의 수심은 2m다. 물이 얇으면 부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공포감이 생길 만큼 너무 깊어도 오히려 감각을 떨어뜨릴 수 있다. 대표팀 관계자는 "박태환이 좋아하는 깊이"라면서 "박태환은 얕은 물보다는 깊은 물을 선호한다. 얕은 물에서는 불안해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부력이 좋은 박태환에게는 얕은 물보다는 깊은 물이 낫다고 말한다.

12일 오전 훈련 때 경기장 수온은 27.5도였다. 국제수영연맹(FINA) 규정에 따르면 수온은 경기 내내 25~28도를 유지해야 한다.

조편성도 좋다. 12일(이하 한국시간) 광저우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발표한 수영 경영 종목 조 편성 및 라인 배정에 따르면 박태환은 '금빛 레이스'의 시동을 걸 자유형 200m 예선을 마지막 조에서 뛰게 됐다. /연합뉴스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 축구 해설자 변신

"알기 쉽게 풀어주는 해설"

허정무 전 월드컵국가대표팀 감독이 13일 아시안게임 축구 해설자로 변신한다.

지난 8월 인턴 유니티드 사령탑으로 K-리그에 복귀한 허정무 감독이 13일 오후 5시(한국시간) 중국 광저우 웨슈산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한국 대표팀의 아시안게임 축구 예선 C조 3차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해설을 맡는다.

MBC의 김정근 캐스터와 호흡을 맞추게 되는 허 감독은 2002 한일 월드컵에서 KBS 해설 위원으로 마이크를 잡은 경험이 있다.



지난 1978년과 1986년 아시안 게임에 출전해 금메달 두 개를 목에 걸었던 허 감독은 11일 출국에 앞서 "딱딱하고 어려운 해설보다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풀어주는 해설을 하겠다"며 "북한과 1차전 결과가 좋지 못했지만 선수 구성 등을 고려하면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 응원의 마음을 담아 해설에 나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무인텔
필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인터넷주소 : www.feelmotel.kr

테마룸 →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